

농업·농촌자원 보전을 위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도입과 향후 과제

박종준 · 김상범 · 이응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일본 사가대학교 농학부

Adoption and Future Tasks of 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for Agricultural and Rural Resources Conservation

Park, Jong-Jun · Kim, Sang-Bum · Lee, Eung-Cheol*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DA

*Faculty of Agriculture, Saga University, Japan

ABSTRACT : The paradigm of agricultural and rural policies has shifted from food production and profitability to the competitiveness of rural areas through the discovery, grants and use of the agricultural and rural resources' potential value. This study aims to discover the value of the agriculture and rural resources and intend to offer the method for discovering resources and its value as the agricultural heritage. To this end, the functions and values of the agricultural and rural resource, the criteria and procedure of Globally and 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which is leading institutions were investigated.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proposed in the process and series of steps of discovery and evaluation of the pluralistic value of the agriculture and rural resources and agri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and management.

Key words :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Rural Resources, Rural Heritage, Agricultural Multifunctionality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세계적으로 농업 및 농촌 정책과 계획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생산량 증대, 품종 개량과 같은 농업 활동과 그 산출물에 비중을 두었으나, 기존의 농업에서 탈피하여 농촌마을 또는 농촌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인간 중심의 농업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농업의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농촌지역의 경쟁력 향상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 자원의 발굴과 활용 그리고 가치부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OECD, 2006),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로 불리는 농업의 기능 및 가치의 재발견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원적 기능은 상품과 비상품이 결합생산 될 때, 생산되는 비상품이 외부성이나 공공재의 성격을 가져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OECD, 2000),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이 식량 생산의 기능 외에 생계유지 및 식량안보, 환경·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 지역사회 유지 및 전통문화 계승, 농촌 경관, 여가 및 관광자원 제공 등의 다양한 비상품재를 공급하는 기능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유엔 농업식량기구(FAO)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독창적인 형태의 가치가 높은 농업 시스템으로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할 중요한 농업기술 및 문화, 생물다양성 등 농업·농촌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www.fao.org). 세계중요농업유산의 현저한 특징으로 식량생산 및 생계유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지식과 기술, 농업문화와 지역사회, 경

Corresponding author : Kim, Sang-Bum

Tel : 031-290-0265

E-mail : landlife@korea.kr

관·토지이용·수자원 관리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 연구는 농업·농촌의 현대화 과정에서 소멸 또는 변형되어가는 농업·농촌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농업유산의 발굴과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한 농업유산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사

농업·농촌의 가치에 관한 연구는 자원(이점선, 2002; 최윤지 등, 2002), 기능 및 기술(임정빈, 2003; 유진채·이희찬, 2003; 신용광 등, 2004; 안윤수 등, 2005; 김미희 등, 2007; 채광석·김관수, 2007; 서명철 등, 2008; 허주녕·김태곤, 2012; 신용광 등, 2012), 인식 및 교육(서우석 등, 2003; 장동현 등, 2006; 김은자 등, 2006)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농업·농촌의 가치에 관한 연구들은 농업과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에 관한 근본적인 가치에 관한 고민보다 주로 정량적 평가를 통한 금전적 가치로의 환산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농업·농촌 가치의 계량적 가치 평가의 경우 그 평가방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표현과 전달 및 현실적인 정책적 수요에는 대응할 수 있었으나, 농업·농촌 가치의 창출과 증대, 보전과 활용 등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최근 유산적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학술적·제도적 관심은 높지 않았다. 다만, 농업유산과 유사한 농촌지역유산(방한영, 2004), 문화적 경관(김란기, 2005), 농촌문화경관(최재웅·김동엽, 2006), 농촌역사경관(박익수, 2009), 전통산업경관(이진희 등, 2012), 농경전통 문화유산(임근욱 등, 2012) 등의 연구가 다소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2012년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돌담밭이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고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하면서 농어업유산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었다. 농어업유산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손호기 등, 2012; 신용광 등, 2012; 윤원근·최인식, 2012) 역시 2012년에 들어서야 시작된 상황이다.

윤원근·최인식(2012)은 농어업유산과 관련한 유사 개념과 제도의 고찰을 통해 농어업유산의 개념과 제도적 정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진희 등(2012)은 전통농업경관과 전통어업경관을 전통산업경관으로 정의하고, 다랑이논, 독살, 염전 등의 전통산업경관자원에 대한 목록 작성과 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명승적 가치를 분

석하였다. 손호기 등(2012)은 일본과 중국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의 농어업유산의 대상과 지정기준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이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게재된 국내 논문 등(윤원근·최인식, 2012; 손호기 등, 2012)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농업유산의 제도 및 연구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농업·농촌은 식량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과 가치 외에도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농업·농촌자원을 발굴하여 농업유산으로의 지정을 위한 내용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농업·농촌자원의 개념과 다원적 기능 그리고 농업유산 등에 관한 연구와 제도 등에 관한 문헌조사를 통해 농업·농촌자원의 가치를 고찰하며, 농업유산의 지정을 위하여 농업유산과 관련한 선도적이고 대표적인 제도인 세계중요농업유산과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등에 관한 문헌과 사례 조사를 통해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농업 농촌자원의 가치

1. 농업·농촌자원의 개념

농업은 작물의 재배와 가축의 사육이라는 활동을 통해 이윤과 영리를 추구하는 산업이며, 토지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을 고도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생산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농촌은 주민 대부분이 이러한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이나 지역이다(이승래, 1982). 농업이 재배와 사육이라는 활동에 비중을 둔 동사적 개념이라면 농촌은 농업활동이 일어나는 장소 또는 지역이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구별될 수 있으나, 농업과 농촌은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며, 농촌은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하다.

농업자원은 작물재배와 가축사육 등 농업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자연물, 기술, 노동력 등으로 자연자원, 문화적 자원, 인적자원으로 구분된다(이승래, 1982). 농업자연자원은 기상현상과 같은 재생 자원과 토지와 물과 같은 생물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농업문화적 자원은 농업생산을 위한 자본, 기술, 기능, 제도, 조직 등을 포함하며, 농업인적자원은 농민, 노동력과 사기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기존의 농업자원에 농업유전자원을 포함하

고 있는데, 이는 농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종자·영양체·화분·세포주·유전자·잠종·종축·정액·세균·진균 및 바이러스 등 현재 또는 미래에 사용될 육종소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생물체를 포함한다(박상미, 2011).

농촌자원은 농촌지역자원, 농촌공익자원, 향토자원, 농촌 어메니티자원 등 유사한 개념이 있으며, 그 정의, 분류, 요소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농촌자원은 “농경을 위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생성·보전되어온 문화, 역사, 생태 등 다양한 요소가 누적되어 표출된 것이며, 전통문화 및 역사, 생태 및 자연자원, 향토음식·특산품·전통가옥, 경관 등을 포함한다(정현욱·이동기, 2002). 최수명 등(1997)은 농촌지역자원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으나, 농촌지역자원을 토지자원, 자연환경자원, 인문사회자원으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원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영·김상범(2005)은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근거하여 농촌공익자원을 “농촌공간에 존재하면서 친근감과 쾌적감을 주는 모든 소재와 이들이 연출하는 이미지”로 정의하였다. 향토자원은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향토적 특성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유무형의 자원”(김상범, 2005)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향토적 전통성과 고유성 그리고 지역 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 안옥선 등,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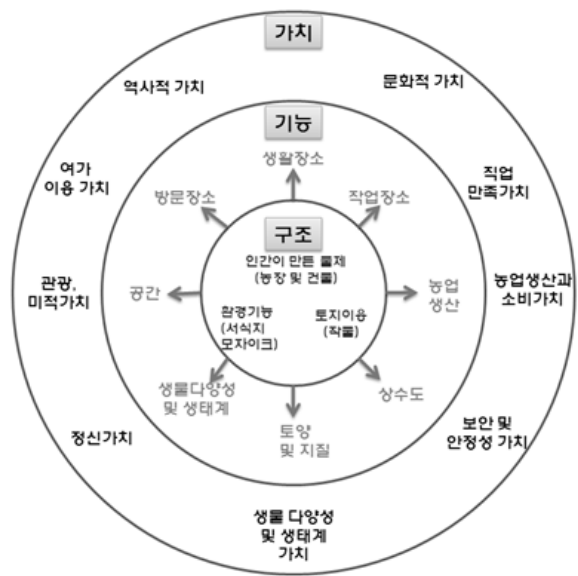
농촌자원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개념인 농촌어메니티는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모습들”로 정의하고 있으며(오정석·김정섭, 2002), 농촌지역의 모습들을 형성하는 구성요소를 농촌어메니티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어메니티자원은 크게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하고 있다(농촌진흥청, 2004). 정남수(2005)는 농촌자원을 농촌에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로 정의하면서 그 중 경관, 역사, 시스템 등 가치를 포함하는 자원을 농촌어메니티자원으로 정의하면서 두 개념을 구분하였다. 허준(2007)은 농촌어메니티자원을 “농촌에 존재하는 특징적 환경과 공동체적 구성요소를 총칭하는 것으로 농촌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 요소이면서 각 구성원에게 휴양적, 심미적,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으로 비물리적 요소까지 포함하여 개념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전통지식자원(이해준, 2006), 농촌구전자원(석대권, 안옥선, 2007),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으로서의 건강자원과 복지력(이응철, 2012)와 같은 농촌의 무형적 자원도 농촌자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농업·농촌자원은 농업과 관련한 자연과

인간, 과정과 결과, 유형과 무형, 기능과 가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농업농촌자원은 농경을 위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농업활동의 결과로서 생성·보전되어온 유형 및 무형의 요소 모두를 총칭하는 것으로 농민은 물론 농업과 관련한 토지, 수자원, 동·식물, 지식·기술, 사회·문화, 경관 등을 포함한다.

2. 농업·농촌자원의 가치

농업·농촌자원의 가치는 식량 공급 기능을 통해 형성되는 본원적 가치와 비식량 공급 기능을 기반으로 한 다원적 가치를 내포한다(농촌진흥청, 2011). 본원적 가치는 농·림·축·수산물 등의 1차 산물의 생산 가치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판매 등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 부가가치를 포함하며, 다원적 가치는 환경 보전, 문화 계승, 경관, 여가 및 관광 등 다양한 가치를 의미한다.



자료 : Bergstrom(1998)

Figure 1 농업·농촌의 구조·기능·가치 모형.

농업·농촌자원의 다원적 가치는 농업·농촌의 기본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다양한 기능의 결과로서 나타난다(Figure 1). 농업·농촌은 농촌자연물, 인공물, 토지이용형태 등의 농업·농촌자원요소로 구성된 체계적인 구조로서 이를 기반으로 농업 생산,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공간 및 장소, 수자원 공급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다양한 기능은 최종적으로 농촌의 가치로 창출되게 되는 것이다. 농업·농촌자원의 가치는 결국 그 구조와 기능에 기인하기 때문에 구조와 기능의 변

화에 따라 그 가치 역시 변화하게 된다. 또한 농업·농촌의 가치 변화는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가치로 창출될 수도 있다. Table 1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정리한 것으로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며, 구체화되고 세분화되는 과정과 함께 새로운 기능과 가치가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

구분	농업·농촌의 기능 및 가치	
WTO	환경보전, 식량안보, 농촌개발	
OECD	경관보전, 종생태계다양성 유지, 토양수질·대기 보전 및 이용, 온실효과예방 등	
FAO	사회	도시화 완화, 농촌공동체 활력 등
	문화	전통문화계승, 경관제공
	환경	홍수방지, 수자원함양, 토양보전 등
	식량안보	식량 안정 공급, 국가 전략적 요청
	경제	균형발전과 성장, 경제위기 완화
농촌진흥청	환경보전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 기후순화, 대기정화, 토양유실 저감, 가축분소화, 수질정화, 생물다양성 유지, 토사붕괴 방지
	문화·경관	휴양처 및 경관 제공, 전통문화계승
	농촌활력	농촌사회유지, 도농 균형발전
	식량안보	식량안보유지

자료 : 농촌진흥청(2011)

농업·농촌자원의 가치는 직·간접적인 활용과 농촌에 거주 또는 방문을 통해 발생하는 이용가치(Use Value)와 자원의 이용 가능성과 인지를 통해 발생하는 비이용가치(non-use value)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비이용가치는 선택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산가치(bequest value) 등으로 구성된다(OECD, 2002). 유산가치는 미래세대로의 전승 가능성에서 발생하는 가치로서 현존 가치의 유무가 아닌 장래의 유산으로서 가능성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다.

농업·농촌자원의 구조와 기능을 통해 형성되는 다원적 가치는 전승 가능성과 미래 가치를 통해 농업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 농업농촌의 구조·기능·가치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농업유산의 특성으로 표출되며, 이들은 농업유산을 발굴·지정하는 기준이 된다.

III. 농업유산

1. 농업유산

농업유산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시작되었고, 각국의 농업 환경 특성과 제도적 배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농업유산은 그 정의가 합의된 용어는 아니며, 농업유산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윤원근·최석인, 2012). 이 연구에서 농업유산의 개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유산 제도 및 정책인 세계중요농업유산, 농촌유산,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가. 세계중요농업유산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담고 있는 토착지역사회의 지식과 혁신, 관습 등을 보전하고 함유하며, 전통적 농경활동을 통한 생물자원의 관습적 이용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된 세계중요농업유산(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 GIAHS)은“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그 사회의 환경과 요구사항들을 적응시키고 공존하면서 진화해 온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토지이용시스템과 경관”으로 정의된다(FAO, 2002)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여러 세대를 걸쳐 축적된 농업, 생태계, 지식·기술, 사회·문화, 경관 등의 구성요소와 이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복합적 시스템이며, 지역의 소규모 농업, 토착민, 전통적 농가 및 농업조직 등에 의한 농업 활동과 농촌 유지와 같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로서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선상에서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을 위한 동적인 보전(dynamic conservation)을 강조한다(www.fao.org).

나. EU 농촌유산

농촌유산(rural heritage)은 개인은 물론 집단이 과거의 의미와 미래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연과 문화의 자연스러운 결합의 결과로서, 농업과 관련한 건축물과 구조물 같은 협의의 농업유산에서 인간과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형성된 유·무형의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CEMAT, 2003). 농촌유산은 유형과 무형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유산은 장기간 인간 활동의 결과로서의 경관, 농업용 건물·주택·공공건물 등의 부동산, 토산품 또는 의식·행사·축제에서 사용한 물건 등의 동산, 다양한 유형의 작

물과 가축 그리고 특산품과 같은 지역 환경과 경작·사육·가공·조리 등의 결과적 산출물이며, 무형유산은 기술, 기능, 방언, 음악, 구전문학, 관습, 축제, 사회조직 등이다. 농촌유산은 농촌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자원이 유산이 될 수 있으나 농촌에서의 유형 자산 또는 무형의 지식 등이 그 자체로서 유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발견’이라는 과정을 통해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부여된다(CEMAT, 2003).

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국가중요농어업유산(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NIAHS)은 2012년부터 중국과 한국에서 시행된 제도로서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을 기반으로 하여 각국의 실정에 맞추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2012a)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을 “농어업인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진화시켜온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 활동 시스템과 이 결과로서 나타난 유·무형 산물”로 정의하면서,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 돌밭담을 지정했다.

중국 농업부는 국가 정책과 계획의 주류로 급부상하

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 3월 국가중요농업문화유산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20개의 국가중요농업문화유산을 지정했으며, 이를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전 단계로서 활용하고 있다(www.fao.org).







농업유산은 농업·농촌자원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 발견으로부터 시작되나 그 의미와 성격 그리고 제도적 배경과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농업유산의 지정 대상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세계중요농업유산과 한국의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을 대상으로 농업유산에 관한 사례, 기준, 절차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농업유산의 지정 현황








1) 세계중요농업유산

세계농업유산은 2013년 현재 25개의 대상(지역)이 지정되었으며, 38개의 후보 대상(지역)이 지정을 신청한 상태로, 지금까지 지정된 세계중요농업유산은 Table 2에서와 같이 산악지대 계단식 논농업생태 시스템, 다모작 또는 복작 농업 시스템, 하층 농작 시스템, 유목·준유목

Table 2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지정 대상

대륙	국가	농업유산명	내용	
아프리카	알제리	Ghout 오아시스	사하라 지역에서의 공정한 물 공급을 위한 관개 시스템과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집약적 농업 생산 시스템	
	케냐	Oldonyonokie/ Olkeri 마사이 목축 유산 지역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 지역의 마사이족의 빈곤 감소, 생태적 지속성을 위한 목축	
	모로코	아틀라스 산맥 오아시스 시스템	아틀라스 산맥의 생계유지와 농업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오아시스와 관련 지식 및 문화	
	탄자니아	Engaresero 마사이 목축 유산 지역	생계 유지와 빈곤 퇴치, 생태적 지속성을 위한 마사이족의 목축	
	탄자니아	Shimbwe Juu Kihamba 농임업	탄자니아 북부 고산지대 Uru-Shimbwe Juu 마을의 다층구조의 흙 가든인 Kimhamba를 이용한 농·임업 통합 시스템	
	튀니지	가프사 오아시스	대추야자를 비롯한 다양한 과일, 채소, 곡물의 재배를 위한 오아시스 관개 시스템과 역사적 농업 경관	

대륙	국가	농업유산명	내용	
중남미	칠레	칠로에 농업	200여 종의 토종 감자를 재배하는 농업종다양성과 멸종위기 동·식물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농업 지역	
	페루	안데스 농업	감자 원산지이며 농업종다양성을 유지하는 해발 4,500m에 이르는 고산지대에서의 농업	
남·동 아시아	인도	코라푹 전통 농업	340종의 벼 원시품종과 76종의 속씨식물 등 유전 자원이 풍부하나 빈곤 지역인 코라푹 지역의 농업	
		캐쉬미르 샤프론 유산	세계적인 샤프론 재배지역으로 뛰어난 경관미와 함께 관련 지식 및 문화 등 전승	
		쿠타나드 해저면 농업 시스템	쿠타나드 지역의 해수면보다 낮은 논농업 지대로 생물다양성의 유지, 독특한 농업방식과 경관 형성	
남·동 아시아	중국	아오한 밭 시스템	중국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작물과 농법·초지 관리 기법 등이 전승되어온 밭 농사 지역	
		동족 물고기-오리 논농사	동족의 벼-물고기-오리 농업시스템으로 농업생물 다양성 유지, 고유의 문화 전승 및 독특한 경관 형성	
		하니족 계단식 논	운남성 하니족의 1300년 역사의 다랑이논이 형성하는 독특한 경관, 생태계 서비스, 물 관리 기술 및 전통문화	
		보이(Pu'er) 전통 차 농업시스템	차마고도에 위치한 세계 최대 야생 차나무 숲으로 풍부한 생물다양성 유지 및 차 문화 중심지	
		벼-물고기 농법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논-물고기 농업 시스템으로 다양한 생산물의 제공 및 생태적 공생을 촉진	
		완넨 전통 벼농업	중국 남북조 시대에 형성된 전형적인 전통 벼농사 마을로 다양한 벼 품종 보유, 풍부한 생물 다양성, 문화 다양성 유지	
		콰이지산 고대 비자나무 숲	고대 비자나무 숲으로 생산물의 주민생계 기여, 독특한 경관 형성,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문화·공동체 형성	

대륙	국가	농업유산명	내용	
		Xuanhua 전통 포도밭	1,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깔때기 모양의 전통 포도 재배 시스템으로 중국 정원농업의 원형	
일본		노토 이산이해(里山里海)	숲, 초지, 농장 등으로 구성된 里山(satoyama)와 연안·해양생태계인 里海(satoumi)의 농·림·수산업 연계 시스템	
		사도 이산(里山)와 따오기	이산이해로 생성되는 다양한 산물과 독특한 경관, 따오기 서식지로서의 논과 이를 유지하는 친환경 농법	
		아소 초지 관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초지 형성과 순환적 이용·관리를 위한 기술과 공동체 및 농촌 경관	
		시즈오카 전통 차-초지 통합 시스템	고품질의 차 생산을 위한 반자연 초지인 차 구사바를 활용한 농업 방식	
		쿠니사키 반도 우사 농림어업 통합 시스템	우사 지역의 상수리나무 숲과 순환적 관리 기법 및 관개용 저수지 연계 시스템	
필리핀		이푸가오 계단식 논	UNESCO 세계유산 등재된 고산지역의 2,000년 역사의 유기농 계단식 논	

자료 : www.fao.org/giahs

시스템, 고대의 관개, 토양, 물 관리 시스템, 복합적 다층 정원, 해저면 농업 시스템, 고가치 곡물 및 향신료 시스템 등의 세계적으로 독특한 농업적 특징을 보인다(김삼범 등, 2013).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유산은 오아시스 농업과 마사이족의 목축업, 복합적 다층 정원 등이 지정되었다. 이들은 농업 환경이 열악한 건조 기후에서 식량생산과 생계유지를 위한 농업의 본원적 기능과 함께 제한적인 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지식과 기술, 공동체와 문화, 사막을 배경으로 형성하는 독특한 경관 및 부족한 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 등의 특징을 가진다.

남미 지역의 농업유산은 안데스 산맥의 열악한 농업 환경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농업활동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며, 감자의 원산지로서 다양한 고유품종의 감자와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농업생물다양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산지대의 독특한 농업 경관을 보인다.

아시아 지역은 문순 기후로 나타나는 벼농사와 차 재배와 관련한 다수의 농업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전통적인 농업 지식과 기술, 문화, 경관 등은 물론 생물의 서식지로서 농지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 및 풍부한 생물다양성이 특징적이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장구한 시간을 통해 농업활동이 이루어져 고유하고 독특한 토지이용, 생태계, 문화 특성을 보이며, 그러한 농업활동이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또한 농업과 관련한 단일 유물이나 유적이 아니라 농업생산, 생태계, 지식·기술, 문화, 경관 등 다양한 유·무형의 요소와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지속가능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가중요농업유산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1월 ‘완도 청산도 구들장’과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했으며(농림축산식품부, 2013), 이들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첫 지정 사례로서 향후 농업유산제도의 방향을 결정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 청산도 구들장논

청산도 구들장논은 구들장 모양의 통수로를 논바닥에 설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 조성한 논으로 도서지역의 열악한 농업환경을 극복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독특한 농업지식과 기술의 결과물이다(Figure 4).



Figure 4 청산도 구들장논.

청산도 구들장논은 순환적 생태환경 거점으로서 긴 꼬리투구새우가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녀, 초분, 고인돌 등 다수의 문화자원과 영화 촬영지로 이용되는 돌담과 유체가 어우러진 경관이 특징적이다(완도군, 2013).

나.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은 현무암으로 쌓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밭으로 제주의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농업유산이다(Figure 5).



Figure 5 제주 돌담밭

돌담은 고려 고종 때부터 형성되어 작물 보호, 토양과 씨앗의 비산 방지, 우마들의 농경지 침입 방지를 통해 주민생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석축 기술과 돌문화의 전승, 독특한 농업경관을 형성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13)

3. 농업유산의 지정 기준

1)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

농업유산 관련 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이며 선도적인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정 기준은 식량·생계수단의 확보(Food and livelihood security),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Biodiversity and ecosystem function), 전통적 지식·농업기술의 계승(Knowledge systems and adapted technologies), 농업문화와 사회제도·관습(Culture, value systems and social organisations, Agri-culture), 수려한 경관, 토지·수자원 관리특성(Remarkable landscapes, land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features) 등 5개 요소로 이루어진다(Table 3).

기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은 2002년 FAO에서 개최된 워크숍 및 조정위원회에서 생물물리학적, 사회·문화·정치, 경제 및 재정 등의 세 측면과 세계, 국가, 지역 등 공간적 수준에서 농업유산에 관한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은 시스템 기준(systems criteria), 정황적 기준(contextual criteria), 프로젝트 실행 기준(project implementation criteria)으로 크게 나뉜다(Table 5). 시스템 기준은 농업유산시스템의 독창성과 비범성, 현저한 특징, 지속성의 역사, 세계적 중요성 등의 세부기준 항목으로 구성된다. 정황적 기준은 대표성과 외부위협, 정책 및 개발 관련성으로 구성되며, 프로젝트 실행 기준은 프로젝트 통합성, 공동 펀드 능력, 프로젝트 접근성 등으로 이루어졌다.

2009년 논의된 GIAHS의 기준은 특정한 대상 또는 지역에 의해 나타나는 농업유산의 세계적 중요성을 더욱 명확히 규명한다는 취지로 기존의 지정 기준 중 모호했던“현저함(outstanding)”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농업유산의 사회·문화적 특성, 생물다양성 및 경관 특성, 지속가능성, 역사적 가치, 현대적 관련성 등을 부각하였다. 첫째, 사회·문화적 특성은 생물·물리 및 사회·문화적 특성이 농업유산을 특징지어주며, 이 특징이 세계적 중요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 생물다양성 및 경관특성은 농업생물, 유전자 등의 종다양성과 이와 관련된 토지, 수자원, 경관의 특성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지식체계, 도구와 기술, 사회문화적 제도 등을 포함한다. 셋째, 지속가능성은 사회·환경적 균형과 조화 그리고 사회경제 및 환경적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성을 의미한다. 넷째, 역사적 가치는 농업다양성, 경관창출, 지식 및 문화 형성 등을 통한 농업유산의 기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현대적 의미는 식량생산과 생

Table 3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

기 준	내 용
I. 식량·생계수단의 확보 (Food and livelihood security)	지역사회의 생계유지를 위한 식량 제공 식량·생계의 안정성 및 탄력성을 위한 비축과 교환
II.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 (Biodiversity and ecosystem function)	농업생물다양성, 유전자원, 생물다양성
III. 전통적 지식·농업기술의 계승 (Knowledge systems and adapted technologies)	농업지식, 기술, 관리 체계, 관습, 규범
IV. 농업문화와 사회제도습관 (Culture, value systems and social organisations, Agri-culture)	세계관, 가치체계, 농업문화적 관례, 지역조직
V. 수려한 경관, 토지·수자원 관리특성 (Remarkable landscapes, land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features)	환경적·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관리로 형성된 경관(토지 모자이크, 관개 체계, 다랑이논·밭 등)

자료 : “Description and Criteria for GIAHS Selection”(www.fao.org/giahs/)

계유지 수단으로서 현재와 미래에서의 삶의 질, 환경적 가치의 창출 등을 포함한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2002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10여년이 지났으나 아직 농업유산의 인식이 정착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농업 분야의 다원적 가치에 재평가로 FAO는 지정 기준의 세부항목의 변경과 보완을 통한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실제로 2009년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을 전면적으로 변경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www.fao.org/giahs).

2)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기준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기준을 준용하여 유산의 가치성, 파트너십, 효과성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Table 5). 첫째, 유산의 가치성은 역사성, 대표성, 특징이라는 3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역사성 항목에서는 100년 이상이라는 명시적인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미래 가치와 지속성을 포함한다. 대표성 항목은 특정 분야에서의 대표성은 물론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 등 다층적 수준에서의 대표성과 차별성

Table 4 기존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2002 ~ 2009년)

구 분	기 준	내 용
I. 시스템 기준	1. 독창성과 비범성	· 다양성 및 복잡성 · 시스템 효율성 · 적응력 · 통합성 · 독창성 및 혁신 · 경제적 실행성 및 지속가능성 · 인류 생태적 지속가능성
	2. 현저한 특징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 경관, 토지, 수자원 관리의 특성 · 식량 및 생계보장 · 사회구조와 문화 · 지식체계 및 농업기술 · 농업유산이 생성한 재화와 용역
	3. 지속성의 역사	· 경제적 실행성과 지속가능성 · 적응력 · 인류 생태적 지속가능성
	4. 세계적 중요성	· 공공재 · 부가가치

구 분	기 준	내 용
II. 정확적 기준	5. 대표성	· 생태계 및 생태지역 · 대표성 · 스칼라 효과 · 지형 · 전시효과
	6. 외부 위협	· 외부 위협의 존재
	7 정책 및 개발 관련성	· 정책적 대표성 · 지속가능성 기준
III. 프로젝트 실행 기준	8. 프로젝트 통합성	· 프로젝트 통합 · 파트너십 · 국제 협약
	9. 공동 펀드 능력	· 공동 펀드 능력
	10. 프로젝트 접근성	· 목표 실현 기여도 · 생태계적 접근 · 국제협약 기여도 · 기존 정책 및 경험 기반 · 참여적 관리 및 지역사회 민감도

자료 : www.fao.org/fileadmin/templates/giahs/PDF/Criteria_GIAHS_selection.pdf

Table 5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기준

구 분	항 목	내 용
유산의 가치성	역사성	· 100년 이상 전부터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것 · 미래에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대표성	· 지역별·분야별로 대표성이 있을 것 -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대표성 · 경관(어메니티)이 수려하여 관광·휴양 상품성이 있을 것
	특 징	· 토지이용 및 수자원 관리 등 아래의 분야(해당되는 1~2항목)에 독특하고 현저한 특징이 있을 것 - 공동체의 농어업 지식체계와 기술 - 농어업 활동을 통한 식량 등 산출물 - 토지·수자원이용 형태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등
파트너십	협력도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추진의지와 사업비분담 등의 유지 관리계획이 있을 것
	참여도	· 보전, 유지, 전승을 위한 지역사회주민(NGO 포함)의 자발적 활동 및 참여가 있을 것
효과성	브랜드	·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지역이미지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활성화 또는 생물다양성	· 농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도농교류활동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지역의 전통적인 농법의 결과로 생물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거나, 특징적인 작물이 서식할 것

자료 :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림축산식품부, 2012b)

의 유무를 지정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유산의 특징은 식량 생산 및 생계 수단,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지식 체계 및 기술, 농어업유산 관련 문화·의식, 현저한 경관 등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의 5가지 기준을 반영하였다. 파트너십은 농업유산의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지와 지자체의 사업비 분담 등 보전과 관리를 위한 계획 등 협력도와 농업유산의 보전, 유지, 전승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도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효과성은 농업유산이 지역 공동체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브랜드 항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와 높은 생물다양성 또는 특징적인 작물의 서식으로 구성된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기준은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의 지정 기준을 준용하였다. 그러나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의 지정 기준이 2009년 전면 개정됨으로써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국가농어업유산제도가 국내의 농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활용한다면 현행 기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유산의 가치의 역사성에서 100년이라는 명시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근대의 가치 있는 농업유산자원이 누락되어 훼손 또는 소멸의 위기에 놓일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시행 초기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러한 항목이 유산의 선정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의한 주민 동원과 참여 조작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효과성 기준에서의 생물다양성은 유산의 특징의 항목에 더 적합하며, 브랜드 가치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유산의 지정 기준이라기보다 유산의 보전·관리 계획에서의 내용으로 더 적합할 것이다.

4. 농업유산의 지정 절차

1)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절차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는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FAO의 심사,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및 등록, 사후관리로 이루어진다(FAO, 2012).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단계는 농업유산 대상 후보를 선정하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서의 특징을 평가하고 발견하는 과정으로 다시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의 5개 지정기준인 현저한 특징을 가진 농업 시스템을 발굴하고 신청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신청서는 국가의 행정기관을 경유하여 FAO에 제출되는데, 국내 주관 부처는 검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신청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입안하는 단계로 실천계획은 지역적·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정된 GIAHS는 의무적으로 실천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실천계획을 채택하여 농업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와 모니터링, 계획실천의 수행과정을 평가한다. 여기서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의 합의 형성이 전제가 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되면 국가 기관에 의해 FAO에 제출하게 된다.

FAO로 제출된 제안서는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세계중요농업유산에 관한 내부 평가기구 또는 위임기관이 제안된 대상지(또는 시스템)를 평가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세계중요농업유산 포럼 또는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서를 발표하게 된다. FAO의 검토

과정은 끝나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통보하게 된다. 지정된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지역 이해관계자가 주도하는 동적 보전(dynamic conservation)과 적응적 관리(adaptive management)을 위한 실천계획을 실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지정은 물론 지정 전후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 보전과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2)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절차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지정은 Figure 6과 같이 신청, 조사 실시, 심의 및 지정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농림축산식품부, 201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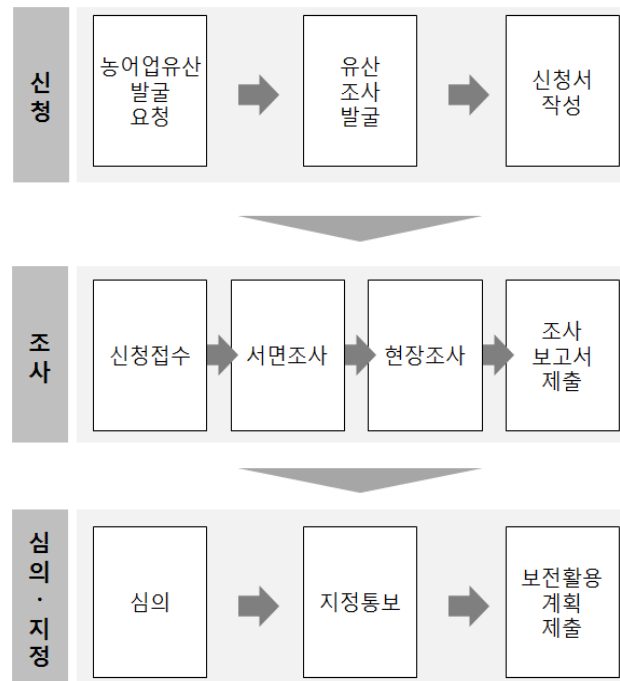


Figure 6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절차.

유산 신청 단계에서는 농어업유산 지정계획을 지자체에 알리게 되면 해당 지자체는 마을 주민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보전 및 활용 가치가 있는 유산을 발굴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농어업유산 신청을 접수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업무 담당자,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예비조사반을 구성하여 서면조사를 통해 기본요건이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게 되고, 서면조사 부합지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결과가 지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

를 요청한다. 심의위원회는 조사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정 여부를 심의하게 되고, 지정 결정을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심의과정 중 부적합한 사항이 보완될 수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해당 시·군은 보전·활용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게 된다.

IV. 논의 및 제언

1. 농업유산의 발굴

농업유산의 발굴에 있어 농업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에서는 농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지정된 세계중요농업유산에는 어업, 축산업, 임업 등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반면 국가농어업유산에서는 농업과 어업을 구분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농업을 농작물재배업은 물론 축산업과 임업 그리고 관련 산업까지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농업에는 어업, 축산업, 임업은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단일 대상이 아닌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지는 복합적 유산의 경우 그 구분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 국가농어업유산에서는 농업과 어업, 농업과 농촌을 구분하고 있으나 농업유산을 농업 시스템 또는 공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농업유산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업유산의 발굴은 농업·농촌자원의 가치발견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자원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조사와 DB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조사된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의 제시와 다원적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진흥청의 농촌어메니티자원 DB를 이용하여 농업·농촌자원에 기능과 가치를 평가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업유산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업유산의 신청·조사단계에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농업유산 발굴에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적 참여를 유도한다면 농업유산에 대한 인식 확대는 물론 신규 자원 발굴에도 기여할 것이다.

2. 농업유산의 평가

농업유산의 평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지표선정으로 현재 세계중요농업유산의 평가지표도 2002년 처음 선정한 지표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2009년에 개정하

였고 지속적으로 보완과 개발을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국가농어업유산도 2012년 처음으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기준변화에 따른 평가지표를 일부 수정하였다.

특히, 농업유산의 평가지표를 세계중요농업유산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그 지정 기준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초기의 세계중요농업유산과 현재의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기준은 농업유산 자체의 특성보다는 경제적·제도적 측면이 강조된 경향이 있다. 농업유산의 발굴과 지정과 함께 관리와 활용까지 고려하다보니 오히려 농업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평가하는데 제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농어업유산의 평가는 농업유산의 특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국가차원의 농업유산과 세계차원의 농업유산을 동일시하기에는 농업유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며, 농업유산의 평가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유산이 갖는 본원적·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다수의 평가자들이 요구된다. 현재 국가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는 농업기술, 문화, 환경, 경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농업유산의 발전을 고려하면 경제, 관광, 디자인 등 미래지향적 분야의 전문가의 확대방안이 필요하며, 농업유산 평가과정과 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3. 농업유산의 지정

현행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은 Figure 7의 a)와 같이 농어업유산자원을 바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하는 형태로 미지정 농어업유산자원을 제도 안으로 포함할 수 있는 농어업유산후보, 지방농어업유산, 농업유산보전지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농어업유산후보는 Figure 7의 b)와 같이 국가중요농어업유산에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가치의 부재 또는 조사의 미흡 등의 이유로 미지정된 유산으로, 추가적인 가치의 발굴과 재조사 등을 통해 향후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지방농어업유산은 시·도 농어업유산과 시·군 농어업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Figure 7의 c)와 같이 농어업유산자원에서부터 지방농어업유산,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이르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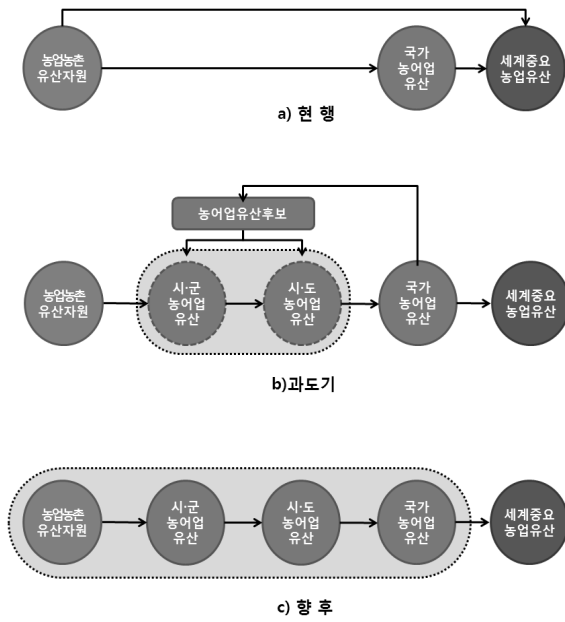


Figure 7 농업유산 지정 절차(안).

농업유산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특정한 지역 또는 장소를 갖는 공간적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유산보전지구의 도입이 필요하다. 농업유산보전지구의 지정은 농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고려하고, 주민의 의사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문화재보호구역 등과 같은 규제적 제도가 아닌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적 성격이어야 한다.

국가농어업유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정에 관한 기준, 범위 등은 추가적인 연구가 시급하며, 국가농어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 외에 지방농어업유산의 신설과 시·도 및 시·군 지방유산으로 세분화하여 지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농업유산을 보전·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업지식과 기술 등 농업무형유산과 농서 및 농촌기록물 등 농업기록유산에 대한 발굴 및 보전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농업·농촌정책의 패러다임이 농업에서 농촌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가 부각되었다. 농업의 다원적 자원 중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되어 미래 세대에 전승 가치가 높은 독특하고 현저한 특징을 보이는 농업자원을 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전·관리하고 있다.

농업유산의 발견과 발굴은 농업·농촌자원이 내재하

는 기능과 가치를 재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농업·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과 인식을 기반으로 한 지정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기준은 고정불변이 아닌 농업유산의 가치와 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농업유산의 발굴, 지정, 보전, 활용 등에 관한 세밀한 연구와 이들의 유기적인 연계 및 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연구의 연계 및 연구결과의 공유, 제도적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업유산제도는 초기 단계의 제도로서 불안정하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적 요식행위와 행정편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농업유산의 발굴·지정, 보전·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비록 초기에는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농업유산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살아있는 유산으로 농어촌의 농어민과 그들의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참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농어민이 주도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농어민을 비롯한 지역주민이 농업유산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대국민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활용해야 한다.

농업유산의 신청과 지정과정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활용하여 참여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농업·환경·시민단체 등이 직접 신청하고 조사·입력할 수 있는 개방형 농업유산 DB를 구축해야 한다. 농업유산의 지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청-조사-심의-지정 단계에 따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농어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 외에 지방농어업유산의 신설과 시·도 및 시·군 지방유산으로 세분화하여 지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농업유산을 보전·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업유산보전지구를 지정하여 농업유산이 시스템으로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13년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과제번호: PJ00898502)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참고문헌

1. 김란기, 2005, 문화유산보호에 있어서 문화적 경관의 새로운 전개, 건축역사연구 14(4): 288-304.

2. 김미희, 안윤수, 박덕병, 안옥선, 신동일, 2007, 식량 작물재배에 관한 전통농업기술의 개발가치 평가, 농업사연구 6(1): 1-47.
3. 김상범, 2005,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향토자원정보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4): 104-111.
4. 김상범, 손호기, 김은자, 2013, 경관보전을 위한 농업·농촌유산 보전과 활용에 관한 고찰, 휴양 및 경관계획연구소 논문집 7(1): 39-47.
5. 김은자, 이상영, 김영, 조순재, 초·중·고 교과서의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수록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6. 김인숙, 최은숙, 1991, 농촌여성 노동의 화폐적 가치 평가를 위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2).
7. 남지호, 2010,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농림축산식품부, 2012a, 농어업 유산제도 본격 도입, 보도자료, 2012년 4월 4일.
9. 농림축산식품부, 2012b,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2-285호.
10. 농림축산식품부, 2013, 국가중요농업유산 1·2호 지정, 보도자료(2013년 1월 21일).
11. 농촌진흥청, 2012, 농업·농촌의 가치평가.
12. 박상미, 2011, 정보의 완전성과 농업유전자원 가치 관계 분석,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 박익수, 2009, 미국 농촌역사경관의 국가문화재 등록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1(2): 9-18.
14. 방한영, 2004, 농촌마을의 지역유산활용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6(2): 53-64.
15. 서교, 이지민, 김한중, 정남수, 조순재, 이정재, 2003, 농촌의 잠재적 가치에 의한 농촌지역개발 평가지표, 농촌계획 9(1).
16. 서명철, 박광래, 고병구, 정원교, 2008, 영농활용자료를 통한 공익기능 계량화 평가,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17. 서우석, 강대구, 정남용, 김재호, 이윤조, 2006,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교과서에 농업·농촌의 기능 및 가치 반영 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4):1-31.
18. 석대권, 안옥선, 2007, 농촌구전자원을 이용한 특수자원 산업화 방안, 향토사연구 19.
19. 손호기, 김상범, 2010, 농촌체험 마을경관의 보전가치 평가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7(4)
20. 손호기, 김상범, 신용광, 2012, 농업·농촌 유산제도화를 위한 해외사례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39(4):841-869.
21. 신용광, 김현중, 김상범, 유승훈, 2012, 농업 유산자의 경제적 가치평가, 농업경영정책연구 39(4).
22. 신용광, 이상영, 김영, 2004, 농촌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와 편익이전, 농촌계획 10(1): 1-7.
23. 안옥선, 김미희, 장환희, 2008, 향토자원 범위 설정 및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 대상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4. 안윤수, 김은자, 김영, 서정호, 2005,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 가치 평가, 농촌사회 15(1): 175-213.
25. 완도군, 2013, 청산도 구들장논 FAO GIAHS 등재 준비 국문 신청서.
26. 유진채, 이희찬, 2003, 조건불리지역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농업경제연구 44(1): 111-130.
27. 윤순덕 박공주(2006)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에 대한 델파이 연구, 농촌계획 12(3): 97-106.
28. 윤원근, 최식인, 2012, 한국 농어업유산제도의 정립 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19(2): 465-495.
29. 이상영, 김상범, 2005, GIS를 이용한 농촌공익 자원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연구, 농촌경영정책연구 32(1): 142-154.
30. 이승래, 1982, 농업자원경제학의 연구대상에 관한 고찰, 농업경영정책연구 9(1): 67-80.
31. 이용철, 이가라시, 이성국, 김건엽, 윤희정, 2012, 農村·農業の多面的機能としての健康資源と福祉力(第1報) - 韓国·慶尚北道の超高齢化社会対策における健康長寿村と地域開発を事例に -, 佐賀大学農学部彙報97 : 37~55.
32. 이점선, 2002, 농촌여성의 노동실태 및 정당한 가치평가와 지위향상,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논문집 8.
33. 이진희, 이재근, 이영이, 김형대, 2012, 전통산업경관의 명승적 가치: 다량이 논, 독살, 염전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3): 14-27.
34. 이해준, 2006, 농촌 전통지식자원으로서는 구전자료의 가치, 향토사연구 18.
35. 임근욱, 이혁진, 박해정, 2012, 농경전통 세계유산의 관광자원 연구, 한국사지리학회지 22(2): 187-201.
36. 임정빈, 2003,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내용과 주요 쟁점, 농업생명과학연구 37(3): 83-90.
37. 임형백, 이성우, 2004, 농촌사회의 경관 유지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3).
38. 장동현, 소순열, 유찬주, 2006, 도시농업의 인식 및

-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전주시 도시민을 사례로, 지역사회연구14(3): 91-105.
39. 정남수, 2005,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평가를 위한 조사표와 항목 개발, 농촌계획 11(4).
40. 제주특별자치도, 2013, 흑룡만리 제주밭담 GIAHS 신청서.
41. 정현욱, 이동기, 2002, 농촌자원을 이용한 그린투어리즘: 순창군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6(3): 67-85.
42. 채광석, 김관수, 2007, 농지의 비농업수익가치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55(3): 63-84.
43. 최수명, 황한철, 한경수, 김영주, 1997, 농촌계획지원용 지역자원평가시스템 구축(I), 농촌계획 3(1): 54-67.
44. 최윤지, 유소이, 최현자, 2002, 여성농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에 관한 소고,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1).
45. 최재웅, 김동엽, 2006, 농촌 문화경관 관련 시책과 마을숲, 당산숲의 위상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4(3): 41-58.
46. 황정임, 김은자, 이상영, 이성우, 2009, 농촌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의 경제적 가치, 농촌지도와 개발 16(3):643-668.
47. 허주녕, 김태곤, 2012,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한국유기농학회지 20(4): 431-445.
48. 허준, 2007, 농촌어메니티자원 발굴 및 조사기법의 특성분석: 서천군을 사례로, 농촌계획 13(2): 75-84.
49. CEMAT, 2003, European Rural Heritage Guide.
50. OECD, 2006, The New Rural Paradigm: Policies and Governance.
51. OECD, 2000,
52. Bergstrom, J. C., 1998, Exploring and Expanding the Landscape Value Terrain, Faculty Paper Series FS 98-20, August,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Applied Economics,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Georgia, US.
53. www.fao.org
54. www.giahs.org.
55. www.giahs.org., Procedures for Application and designation of a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2012.
56. www.giahs.org., Template for GIAHS proposal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Initiative, 2012.

접 수 일: (2013년 10월 2일)

수 정 일: (1차: 2013년 10월 29일, 2차: 11월 26일
3차: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13년 11월 28일)

■ 3인 익명 심사필